예수님 시인하는 즐거움

(마태복음 10:24~33)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시인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 시인하는 즐거움'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다면 지구상의 75억 인류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기입니다. 즐거운 직장생활을 원하신다면 직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즐거운 가정생활을 원하신다면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인하는 삶이 즐거운 인생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인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하다는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뜻이 보다 함축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하다는 말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난 시인하다의 뜻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본문 32~33절의 말씀은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으면 죽이고 밟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쉽게 연상됩니다.
시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모로게오(ὁμολογέω)로써 호모로고스(ὁμολογος)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고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같은 말을 한다는 뜻으로써 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한다는 것은 서로 갈등하고 거슬리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조건 동의해주고 내가 또한 상대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

될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조금도 갈등과 거슬림이 없는 한 마음이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금슬이 좋은 부부와도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드러나는 것처럼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아무 갈등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함을 시인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함의 의미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정도로 편안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한정짓는다면 귀신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군대귀신을 쫓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주님이심을 알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시인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까지 했지만 예수님과 연합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본문에서 시인함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 있다면 그 증거가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우자와 싸우고 출근을 하자 일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배우자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삶에서 시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루 장사를 망치고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기분이 내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장사와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서울대에 합격한 자녀를 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하루 종일 싱글벙글합니다. 자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시인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마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장사와 연결되어 있고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고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백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함의 문제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정도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기쁘게 연합되어 있느냐가 시인함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느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마디도 꺼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아가면서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하였다면 예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티가 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살펴보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함은 곧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정도로 연합된 상태임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이 천국에 가게 되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배우자 앞에서 천국에 간 마음 상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천국에 간 마음 상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족들 앞에서 인상을 쓰고 온유함도 없고 참음도 없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다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가신 천국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연합이 없으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함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에 들어가심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빠져나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을 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겁습니다.
대화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삶에 존재하는 문제의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문제 하나에도 75억 명에게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건강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기에 모든 사람과 대화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이름에 낚여서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문제였던 것들을 등져야만 하고 등진 일마다 하나님의 명령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에 관계된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불신앙이고 미련한 생각합니다. IT 관계에 대한 일로 회의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답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마음은 회의석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회의석상에서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보내져도 안 되고 경쟁업체에 보내져도 안 됩니다.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골몰해 있을 때에 나는 천국에 가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 회의에 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나은 회의가 될 가능성이 몇 백배 몇 천배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르시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의 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 됩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함에 있어서 박해와 탄압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마음을 떨어뜨려 지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

다.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삼가고 시인함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로부터 마음을 삼가야 합니다. 마음을 떨어뜨려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예수님 안에 두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태도에 반응하기에 앞서 마음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마음을 둘 때에 천국에 간 티를 내게 됩니다. 삼가는 것과 시인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시인함의 전제조건이고 천국에 있는 티를 낼 때에 세상을 삼가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과감히 복음을 외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박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에 즐겁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세상에 둔 사람들은 이러한 해답이 제시될 때에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삶 전체를 부인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이름에 낚이기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좋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을 가진 티를 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기존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삶 전체가 전면적으로 부인됨을 느끼게 됩니다. 돈으로 기뻐하지 않고 건강으로 인해서 좋아하거나 안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는데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자랑으로 삼고 쌓아오며 살았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삶을 부정당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전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이룬 것을 근거로 전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우월함을 드러냄으로써 전도가 되리라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닌 더욱더 타락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게 잘 산다는 소리는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의 영혼 또한 시궁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생을 헛살아 왔음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돈과 형통이 좋은데 저 사람은 돈도 없고 형통하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부인됨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한 때는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면 할수록 세상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은 높습니다. 부인되어야 할 가치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세속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목회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의 당회장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어도 교인이 고작 다섯 명의 목회를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 좋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천국 앞에서 배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고 탄압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설령 목숨을 빼앗긴다 하여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서 손해보고 안타까워하고 상실감을 가지게 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세상에는 나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죽음에 이르렀으나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여 마음이 천국에 올라간 티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을 보고 청년 사울의 철저한 자기 확신은 깨어지기 시작하여 바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강력한 답이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이름으로 사람을 낚아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복음의 효과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연합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 하늘에 있는 티를 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기회를 얻게 하시며 또한 문제 해결의 비결을 제시하게 하시며 혹시 탄압을 받더라도 후일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